

목포 서남권 수산식품수출단지 조성 순풍 부나

전남도 해양수산 융복합 벨트 핵심 프로젝트 다음달 예타 발표...이낙연 총리 오늘 현장 방문

전남도 해양수산 융복합 벨트 핵심 프로젝트인 서남권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예타) 조사결과가 다음달 발표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오는 22일 사업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어서 예타 결과 발표와 함께 서남권 수출단지 조성사업에 청신호로 받아들여진다.

21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 총리는 이날 오후 목포 대양일반산업단지 내 서남권 수산식품수출단지 예정부지를 둘러볼 예정이다. 서남권 수산식품수출단지는 전남도가 해양수산 융복합 벨트 조성사업의 하나로 추진하는 역점사업이다.

전남도 해양수산 융복합 벨트는 총사업비 5307억원을 들여 신산업 육성, 가공유통 고도화, 생산기반 강화, 어촌 6차 산업화 지원, 연구개발 클러스터 구축 등 4개 분야 19개 사업을 추진한다. 수출단지 조성은 김 산업연구소, 수산 기자재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과 함께 융복합 벨트의 핵심사업이다. 여기에는 국비 700억원 지방비 300억원 등 1000억원을 투입한다.

목포 대양산단 부지 2만3000㎡에 건축면적 1만4000여㎡ 규모 단지를 조성해 수산물 가공시설 60실, 냉동·냉장창고, 물류창고, 관리시설 등을 갖춘다. 중국과 동

남아 시장을 겨냥한 대규모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으로 지역 수산업과 경제를 활성화하는 기반 인프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전남이 수산물 생산 전곡 1위이면서 수산 가공물 생산과 유통은 타 지역에 뒤처지는 현상을 타개하기 위한 전략 아래 마련됐다.

하지만 사업 계획이 발표된 지 3년이 지났는데도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않으면서 그동안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기획재정부의 2017년 상반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돼 국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자료확보 등으로 예타 조사가 계속되면서 여태껏 성과가 없었다.

전남도는 국비확보를 위해 그동안 해양수산부와 기재부 등을 상대로 사업 타당성

과 시급성을 설득하고 예타 수행기관 등에도 관련 자료를 제공했다.

예타 선정 2년여 만에 조사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남도는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 행정자치부 투·융자 심사, 기본·실시설계 등을 거쳐 최대한 이른 시기에 착공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이 총리의 현장 방문 소식도 사업 추진에 청신호로 전남도는 받아들이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최대 수산물 생산 지역인 전남에 생산과 가공시설을 집적하고 수출도 활성화하겠다"며 "서남권 경제 활성화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이용섭 시장 설 앞두고 기업 현장 방문

이용섭 광주시장이 설 명절을 앞두고 21일 새벽 6시 문인 북구청장과 함께 북구 양산동 뉴산성인력소개를 방문해 구인·구직자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위로의 말을 전했다. <사진> 이 시장은 이어 오후에는 평동산단에서 자동차 내장재를 생산하고 있는 (주)무등기업을 방문해 기술연구소와 생산현장을 둘러보고 근로자들을 격려했다.

이 시장은 "올해부터는 기업, 직업소

개소를 직접 찾아가 현장에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자동차 부품기업들이 빛그린산단에 완성차 공장을 유치하는 일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광주형일지리를 반드시 성공시켜 지역 기업들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24일에는 말바우시장과 우산종합사회복지관 등을 찾아 현장 목소리를 듣기로 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황룡강 장륙습지 보호지역 지정 25일 광산구청서 찬반 토론회

광주 황룡강 장륙습지의 국가 습지보호지역 지정 추진에 대한 찬반 의견을 나누는 토론회가 열린다.

21일 광주 광산구에 따르면 장륙습지 보호지역 지정 주민토론회를 오는 25일 오후 2시 구청 7층 회의실에서 개최한다.

환경부에 국가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요청한 광주시가 2016년부터 이듬해까지 시행한 사전조사 내용과 장륙습지 보호 필요성을 설명한다.

습지보호지역 지정에 반대하는 주민이 사업 차질을 우려하는 송정역 일원 고속철도(KTX) 투자선도지구 개발에 대한 설명도 함께 진행된다. 관계 기관 단체의 추진 상황 발표에 이어 찬반 양측 토론회를 이어간다.

/*최승열 기자 srchoi@kwangju.co.kr



“외유성 해외 관광 안 한다” 21일 대전 유성구 라도무스 아트센터에서 열린 전국 사·구의회 의장 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참석자들이 “변화와 혁신으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자” 손 피켓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협의회는 이날 외유성 해외 관광을 하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자정 결의를 했다.

중앙공원 2지구 우선협상자 호반 최종 결정

광주시가 민간공원 특례 2단계사업 중 중앙공원 2지구 우선협상대상자를 금호산업(주)에서 (주)호반으로 변경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광주시 정중제 행정부시장은 21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중앙공원 2지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금호산업(주)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 부시장은 "금호산업이 제출한 의견서를 다각적이고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 부시장은 "이번 제안서 평가와 관련한 일련의 과정은 광주시의 평가 오류를 바로잡고 행정의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 "이렇다 할 귀책사유가 없는 금호산업 측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상실

하게 된 데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특성상 일몰제가 적용되는 만큼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금호산업이 대응적으로 협조해 주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정 부시장은 이어 "광주시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2020년 6월 말 공영일몰제에 맞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1단계 사업 4개 공원(마루, 송암, 수랑, 봉산)은 제안사업 수용 여부를 조속한 시일 내에 결정하고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후속 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또 "2단계 5개 공원(중앙, 중의, 일곡, 운암산, 신운) 6개 지구는 4개월 내에 협상을 마무리하고 도시공원위원회 자문·심의와 1년이 소요되는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 지역화폐 ‘광주사랑 카드상품권’ 3월 출시

기명식·무기명 형태 발행 소상공인 지원 시책 추진

광주시가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내 선순환 경제기반 조성을 위해 지역화폐인 가칭 '광주사랑 카드상품권'을 오는 3월 출시한다. '광주사랑 카드상품권'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명식 체크카드와 무기명 선불카드 형태로 발행된다.

시는 21일 "올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사업하기 좋은 광주 만들기'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집중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지역화폐인 '광주사랑 카드상품권'은 광주시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 광주지역으로 제한하고 소상공인 업소 카드가맹점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대형 백화점과 기업형 SSM, 대형마트 등은 제외된다. 또 복지포인트 등 공공기관 정책수당과 연계해 경제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현장 체감형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빛고을 소상공인 지킴이 사업'도 처음으로 시행한다. 소상공인을 위해 시를 비롯한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등 기관에서

시행하는 30여 개 지원 사업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소상공인 지킴이'가 직접 찾아가 맞춤형 지원사업을 안내하고 접수대행부터 실행, 완료까지 도와주는 방식이다. 만 39세 이하의 청년 10명을 우선 채용해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자치구별로 구성된 팀 단위로 활동을 시행할 계획이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고객센터 및 고객 지원센터 등을 설치하고 전기·가스 등 안전 관리를 위한 시설 정비 등 시설 현대화 사업도 추진한다. 약 300억원 규모의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영세자영업자의 경영안정자금을 운영, 소상공인을 위한 자

금, 경영 지원도 강화한다. 이번 사업은 광주신용보증재단이 보증하고 10개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지원한다. 업체당 대출액은 2500만원 이내이며, 금리는 고정금리와 변동 금리 중 대출자가 은행과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 이 외에도 '노란우산 공제' 가입자 중 연 매출액 2억원 이하 공제 신규 가입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1년 간 장려금 1만원 적립, 지역 내 우수 소상공인 6개 업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로 육성, 유통업 구조개선자금 25억원 규모 지원 등의 시책도 추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지원시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현장 목소리를 청취해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가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에 탁용석씨 선임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이사회(이하 진흥원)는 21일 선임 위원으로 탁용석(사진) CJ헬로 성장지원 상무를 선임했다. 이날 임시이사회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2명의 원장 후보자가운데 탁용석씨를 7대 원장으로 선임하는 안을 최종 의결했다.

조선훈 무역학과를 나와 중앙대 방송영상학 석사학위를 취득한 선임 탁 원장은 CJ헬로의 성장지원 상무에 재직 중으로 홍보, 케이블방송과 플랫폼 사업 등 콘텐츠

츠 산업 분야에서 상당한 성과를 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과 ICT산업, 콘텐츠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2002년 설립됐으며, 연간 300억 여원 규모의 예산을 운용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선로 걱정없는
엘리형 태양발전소

선착순 분양

'최소 25년 이상'
마르지않게 정성들인 노후 연금식
엘리형 태양광발전소

태양광 100Kw	동식물재배사 위탁, 영농(임대)
년 4,000만원 이상 수익가능	

N·B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주)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
한국전기공사협회

자기자본 투자금 대비
년 40% 수익 기대

2019년 8월~10월 준공예정

현금 투자금 회수기간
▶ 최단 2년 6개월 가능

계약금 1천만원
선착순 50개소 접수 중

상담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선로 걱정 마시고 전화주세요!